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광주 복합문화산단 조성... 목포~부산 철도 고속화”

만남사람=임동욱 서울취재부장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는 13일 오후 새누리당 중앙당사 6층 회의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인터뷰에서 박 후보는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찬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맘 흘러 열리면 이를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2시간 동안 차분한 어투로 답답하게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이번 대선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 두 자릿 수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싶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20~30 세대와 수도권 등 지지율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문제다. 각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가 각각 있다. 거기에 맞는, 피부와 와 닿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만남은 계속할 계획이다. 유족이 동의 하신다면 만나 뵙겠다.
-과거사 인식 논란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압축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고통과 그림자도 있었다. 좋은 점은 승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어두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지난 시절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대해 딸로서 죄송스럽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위로의 말씀도 드렸다. 또한, 민주화를 위해 정치를 하면서 더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과가 아니다’고 자꾸 하게 되면 진정한 화해의 길로 가기 어렵다. 과거 지향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오면서 국민이 힘들어하는 현실의 문제, 미래에 관한 얘기는 실종 되다시피 됐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로 가야 한다.
-경제 전망이 어둡다. 경제 민주화 계획이 수정되는가.
▲경제 성장과 경제 민주화는 따로 가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 민주화를 하면서 경제 성장을 더 견실하게 할 수 있



5+2 광역경제권 재검토 호남 배려 경제 민주화는 재벌 때리기 아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한제를 뒤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때문에 고통 받는 데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제1금융권으로 옮겨서 이자 부담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 전세

고 대신에 매각한 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도 검토중이다.
-경색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해법은
▲우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으로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역대 대한민국의 약속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를 안 지키면서 다시 약속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7·4 남북공동선언, 6·15 선언, 10·4 선언 등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한 거다. 기존의 약속을 지켜가고 다음에 인도적 지원이나 상호 호혜적인 사업도 꾸준히 지속시켜야 한다. 그런 게 잘 되면 신뢰가 더 구축될 수 있고 북한의 사회 인프라 구축이나 남북 경협을 더 활성화 한다든가 더 크게 갈 수 있다.
-남북의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는데 당선된다면 임기 내 내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는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
-독도를 놓고 한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분권은 그동안 추진해 왔지만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가 참여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 재정 문제도 중요하다. 취득세 위주의 지방 재정 틀인데 이를 지방 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더 높이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 정부의 복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국민에게 기초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복지 서비스는 정부가 맡고 지역에 특화된 복지 서비스는 지방이 맡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야 한다.
-농어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현장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의 희망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세 가지를 농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21세기 블루 오션 산업을 육성,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 광주는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전남은 관광의 요충지로 키워나가겠다.

인혁당 유족들 동의하면 만나고 싶다 과거사 여러번 사과...이젠 미래로 가야

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는 믿음을 드러내며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선대위에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인사들도 영입할 것인지.
▲선거의 컨셉을 ‘국민의 삶’으로 잡고 있다.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국민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대통령 차원에서, 문을 활짝 열고 다 모시려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의 인사스타일도 폐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저는 폐쇄적이지 않다. 당 대표 시절에도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을 요소요소 배치했고 비대위 시절에도 새누리당에 쓴 소리 한 분, 야당 성향 인사 등도 영입했다. 이번에도 한나라당 불법 선거자금 수사를 총지휘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을 모셨다. 폐쇄적이라면 이런 게 가능했겠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이나 학교 등을 가리지 않고 정말 대통령 차원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골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인혁당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족이나 피해자 분들을 만나는 등 대통령 행보를 계속할 것인지.
▲화합을 위해서 앞으로도 폭넓은 대화와

다고 본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조화롭게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틀을 확실하게 만들겠다.
-경제 민주화를 놓고 재벌과 대기업의 위기감이 크다.
▲경제 민주화는 재벌을 때리고, 해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의 경우, 1대99라는 주장을 퍼면서 편을 가르고 있다. 재벌도 그런 식으로 가면 해체될 수 있다. 다만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통해서 약자들에게 대한 부담한 요구는 당연히 범지구에서 근절돼야 되는 일이다. 올바른 기업 활동은 얼마든지 보장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있다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문화, 관광,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벤처산업도 활성화해야 한다. 다양한 취업지원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하우스 푸어 등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많은 고민을 해왔다. 주택 문제는 집이 있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서 풀어야 한다. 집이 없는 경우, 전월세 대책으로는

선대위에 국민·참여 정부 인사도 영입 청소년 잠재력·끼 평가 취업 지원할 것

▲한일 문제는 독도 문제로 크게 됐는데 그건 사실 분쟁이 아니다. 영토 문제는 분쟁이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얘기가 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일본이 역사적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경제 및 안보 협력, 문화 교류, 미래세대 간의 교류가 전부 지장을 받고 있다. 양국 간에 크게 잃는 게 많다. 일본이 독도 문제나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기를 촉구한다.
-구체적인 지방 발전 정책이 있다면.
▲이제 지역은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 지역 인재, 지역 과학기술 육성 등 세 가지 축을 핵심으로 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지역 산업은 그 지역의 특화된 산업, 그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능성 많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지역 인재들을 그 지역에서 키워내야 하며 그 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필요한 과학기술을 육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3가지 중심 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전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방 분권 확대와 지방 재정 확충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특히, 광주는 복합문화산단지역을 조성해 전국의 문화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들게 해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도 만들겠다. 또한, 광산업 발전도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전남은 남해안 관광벨트를 포함, 관광산업을 확실히 키우겠다. 목포에서 부산까지의 철도 고속화도 단계적으로 검토, 영호남이 같이 사는 통합의 시대를 이뤄가겠다.
-지역갈등 해소책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있는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각종 정부 인사와 예산 배정에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구현해 나가겠다. 기계적인 형평이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해소라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형평성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선도시업 지정과 인구비례 예산배정 방침 때문에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가겠다. /tuim@kwangju.co.kr

■ 걸어온 길 15대 보선 당선 정치 입문한 ‘선거의 여왕’... 세번째 대권 도전

박근혜 후보는 1952년 대구에서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유영수의 장녀로 태어났다. 육군 소장이던 부친이 5·16을 일으켜 1963년 정권을 잡자 이때부터 약 18년간 청와대에서 지냈다. 그의 인생에서 첫 굴곡은 1974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어머니가 흉탄에 맞아 절명했을 때였다. 그는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신했다. 1979년 10월26일에는 총탄에 아버지마저 잃게 되자 이후 20년 가량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다. 박 후보의 정치 역정은 1998년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대구 달성)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2000년 당 부총재로 당선되면서 정치 지도자 반열에 섰지만 당시 이회창 전 총재와 정치 코드가 맞지 않아 결별을 선언하고, 신당

(미래연합)을 창당했다. 이어 2002년 이회창 전 총재로부터 당권·대권 분리를 약속받은 후 재입당해 사실상 여권의 1인자로 등극한다. 그는 대선 패배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정상화시키고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오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박 후보의 본격적 대권도전은 지난 200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하지만, 2001년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하면서 대권 도전을 포기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로 볼 수도 있다. 2007년에는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0일 전당대회에서 84%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며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의 사람들 정치·문화·체육계 두루 포진... 호남인맥엔 김광두·이정현·이상일

지난 4·11 총선을 전후로 경북 출신의 최경환 의원이 박 후보의 최고 실세로 부상했다. 3선의 유정복 의원과 인천 출신의 이학재 의원은 최측근 의원으로 분류된다. 부산 출신이자 후보와 서강대 동문인 서병수 사무총장, 경선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과 정책을 담당했던 안종범·강석훈 의원, 조직을 담당했던 홍문중 의원 등도 신주류 측근에 속한다. 후보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해온 김재원 의원은 야당의 검증 공세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홍사덕 전 의원과 김종인 전 장관, 이상돈 교수, 윤병세 전 외교안보수석, 최외출 경남대 부총장, 안종범 의원 등은 가까이서 정치적·정책적 조언을 하고 있다. 이재만·이춘상 보좌관, 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에 대한 박 전 위원장의 신뢰는 절

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계에서는 박명선 신시킴퍼니 대표, 이예리사 의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장을 지낸 김장실 의원 등이 있다. 언론계에서는 서울신문 논설위원 출신인 박대출 의원과 SBS 출신 홍지만 의원 등이 핵심 멤버로 꼽힌다. 박 후보 호남 인맥의 정점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이정현 최고위원이 있다. 나주 출신의 김 원장은 박 후보와 서강대 동문이고, 곡성 출신의 이 최고위원은 대표 시절부터 후보의 ‘입’으로 불릴 정도다. 전북 고창 출신의 진영 의원과 영광 출신의 이상현 의원,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등원해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함평 출신의 이상일 의원도 박 후보의 호남 인맥으로 분류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